

동두천시 일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생활적응 및 식행동 분석

김혜원^{1,2}, 김민화³, 김지명^{4*}

¹안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²보건영양연구소, ³신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⁴신한대학교 식품조리과학부 식품영양전공

Analysis of Food Adaptation and Dietary Behavior of Marriage Migrant Women According to Their Acculturation Type in Dongducheon City

Hye-Won Kim^{1,2}, Min-Hwa Kim³, Ji-Myung Kim^{4*}

¹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Anyang University, ²Institute of Health and Nutrition,

³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hinhan University, ⁴Food and Nutrition Major, Division of
Food Science & Culinary Arts, Shinha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그들의 식생활적응 실태 및 식행동을 분석하고, 식생활적응과 식행동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훈련된 조사자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동화유형군의 식생활적응도가 가장 높았고, 분리유형군이 가장 낮았다. 또한,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행동 점수를 분석한 결과, 우유 및 유제품을 매일 섭취하는 식행동에서만 동화유형군에서 가장 높았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및 식생활적응과 식행동 간에 상관성 분석에서 식생활적응은 동화요인과 식행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문화적응유형 중 동화요인만이 식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식생활적응은 식행동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주국 문화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화적 문화적응이 식생활적응을 높여 올바른 식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유형, 동화, 식생활적응, 식행동, 식습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is of food adaptation and dietary behavior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according to their acculturation type, and find out their relationship. The survey was conducted by well-trained researchers using questionnaires translated into English, Chinese and Vietnamese. Food adaptational score was the highest in the assimilation type, and the separation type was the lowest. Dietary behavioral score in daily intake of milk and dairy foods was the highest in the assimilation type.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occurred between food adaptational score and dietary behavioral score, and also, between food adaptational score and assimilation score.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shows that only assimilation affects food adaptational score, and food adaptational score affects the improvement of dietary behavior. In conclusion, marriage migrant women's positive attitude of new cultures, assimilation, might help them not only adapt to new cultures, but food adaptation and right dietary behaviors.

Key Words : Marriage Migrant Women, Acculturation Type, Assimilation, Food Adaptation, Dietary Behavior, Dietary habi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0011486).

*Corresponding Author : Ji-Myung Kim(kjm@shinhan.ac.kr)

Received February 5, 2018

Revised March 16, 2018

Accepted April 20, 2018

Published April 28, 2018

1. 서론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의 수가 2011년을 기준으로 141,654명으로 조사되었으며[1], 국적별 결혼이민자 수는 중국이 4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이 25.0%, 일본이 7.4%, 필리핀이 5.3%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123,093명으로 전체의 86.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015년을 기준으로 128,336명으로 전체의 82.6%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2010년 우리나라 총 인구인 48,580,293명과 2015년 우리나라 총 인구인 51,069,375명 중 각각 약 0.25%와 0.23%에 해당하는 수로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지만[2], 2세 출산으로 인한 인구 증가를 고려하면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3-7].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되게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이주국 문화와 접촉하면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다양한 갈등 및 문화적응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8]. J. W. Berry. (2001; 2005)는 모국의 문화를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에 따라 문화적응유형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이주국 문화를 수용하는 통합(Integration)유형,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지 않고 이주국 문화를 수용하는 동화(Assimilation)유형, 모국의 문화를 고수하는 분리(Separation)유형, 모국의 문화와 이주국 문화에서 갈등하고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지도, 이주국 문화를 수용하지도 않는 주변화(Marginalization)유형으로 분류하였다[9,10]. 이민자의 이러한 문화적응유형과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통합유형일 경우 이주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장 덜 받으며 주변화유형일 경우 가장 심하게 받는다고 한다[10-12]. 이를 보아 이민자들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응유형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향후 건강상태에 깊게 관련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식생활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새롭게 접하게 되는 가장 기본이 되고 밀접한 생활양식으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식생활적응이라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4,13]. 식생활은 출생 후 성장하면서 습득하고 형성되

는 행위로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해도 오랫동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주국 식생활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14]. 이주국에서의 식생활은 그곳에서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문화적응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바람직하지 않은 식생활, 예를 들어 식품군의 불균형한 섭취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행동 등을 야기하였으며[15,16], 이주국 문화로의 적응과 개인의 건강 및 식생활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들의 쌀 섭취량의 변화와 만성질환 유병율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17].

문화적응 및 식생활적응 정도는 결혼이주여성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그들의 가정, 나아가 사회 및 국가의 건강과도 직결된다[18-20].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주국 식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나 제도의 마련 등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화적응유형 분석을 통한 이들의 식생활적응 및 식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식생활적응과 영양소섭취실태를 보고한 선행연구에서는 식생활적응과 바람직한 식행동 및 영양상태 개선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으나[13], 문화적응유형과의 관련성을 미처 규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생활적응 실태뿐만 아니라 식행동을 분석하고 그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가지고 연구 수행을 하였다.

- 연구문제 1.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생활적응 및 식행동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및 식생활적응과 식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 연구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생활적응 및 식행동을 분석하고, 식생활적응과 식행동과의 상관성을 파악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2.1 문화적응의 개념과 문화적응유형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각각의 독립적인 문화 간의 접촉으로 발생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변화를 말하며 [21,22], 언어, 식문화, 생활방식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주국 문화에 대해 새롭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재적응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23]. 문화적응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단일차원모델(One-dimensional model)과 이중차원모델(Two-dimensional model), 다차원적모델(Multidimensional model) 등이 있는데, 단일차원모델은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 초기에 제시된 이론으로 이주국 문화에 대한 적응만을 고려하여 모국의 문화에서 이주국 문화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는 동화모델을 말한다 [24]. 이후 모국 문화 유지와 이주국 문화 접촉이라는 독립된 두 차원으로 설명하는 이중차원모델이 등장하였고, 문화적응에 대한 측정요소로 언어, 음식, 정체성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모델도 제시되었다 [25]. 문화적응이론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친 J. W. Berry. (2001)는 이중차원모델을 바탕으로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는 정도와 이주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정도로 문화적응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개념화하였는데,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유형으로 나누어진다[9].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화적응유형을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연구에 반영하고 있는데,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26], 거주기간, 자녀수, 교육수준, 한국어 수준 등에 대한[22,27]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유형 별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이 한국 문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게다가 결혼이주여성들과 자녀의 문화적응유형에 대해서도 접근함으로써[28] 문화적응 연구 범위를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까지도 넓혀가고 있기에,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들 및 그들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문화적응유형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수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2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식생활적응

새로운 식생활에 대한 적응은 이주자들이 이주국에서의 식생활 패턴이나 식품 구입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으로서[29], 이주국에서의 거주기간, 교육수준, 경제적 수입, 이주국 언어의 활용성, 문화적응에 대한 개인의 의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미국 식습관에 보다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30], 한국에서도 거주기간이 길수록 식생활 적응을 잘하고 있었다[31].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주국에서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32], 캐나다에 거주하는 남아시아인의 연구에서는 영어를 더 잘할수록 캐나다의 식문화를 더 잘 이해했다고 하였다 [33]. 이와 더불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음식을 배우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식생활 적응도가 높았다는 연구도 있었다[19].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 후 가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화적 차이는 식문화로 조사되어[34,35], 이들이 우리나라 식습관에 적응을 하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식생활 부적응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식습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36]. 자녀는 어머니의 식품 선택에 영향을 받으며[37], 특히 영유아기 자녀에게 올바르게 못한 식습관이 형성되면 이는 개선이 어려울뿐더러 평생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38].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건강한 식습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식생활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이유를 면담조사 한 결과 한국음식 섭취 경험의 부족, 요리법에 대한 지식 부족, 가르쳐 주는 이와 의사소통 문제로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하였다[39]. 하지만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이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하여 한국 식문화 교육이 필요함을 꾸준히 제안하고 있으나[19,40-42], 실제 개발된 교재들은 한국 식문화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20].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식생활에 대해 원활하게 적응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문화적응유형별 접근이다. 모국과 한국 음식을 모두 지향하는 통합유형의 특성을 가진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식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있었다는 연구에서는[31], 이주민의 문화적응유형을 파악함으로써 그들을 이해하고 한국 식문화의 인지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통합유형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선호되어온 문화적응 형태로 문화적응에 따른 최선의 정신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고[43,44], 문화적응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11,12].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

주민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의미한다[45]. 하지만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그들의 문화적응유형과는 상관없이 모국의 문화는 포기하고 한국 문화만을 강조하는 강요된 동화과정을 겪고 있다[46].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문화 수용 및 적응에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부재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식생활적응을 위한 첫 단계로서 그들의 문화적응유형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따른 접근을 달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3 문화적응유형 및 식생활적응과 식행동 간의 관계성

새로운 문화적응 과정에서 개인의 식습관 및 식행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가 되며, 변화된 식행동은 개인의 영양상태 유지 및 향후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15].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식행동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중국 남서부로 이주한 이민자들의 경우 문화적응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식습관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고, 열량 섭취량의 증가, 지나친 음주, 과일과 채소 섭취의 감소, 지방과 당분의 잦은 섭취 및 아침 결식 등의 불규칙적 식습관을 보였다[16]. 또 다른 연구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로 이주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식생활적응을 잘 하고 있었고, 건강한 식행동 및 영양소와 식품섭취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13]. 반면에 우리나라에 이주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영양소 섭취상태, 식습관 및 식행동,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있었다[15]. 우리나라에 유학 온 중국유학생에서 문화적응도가 낮은 경우 라면과 국수와 같은 곡류의 섭취빈도가 높고 자국의 식습관을 비교적 높게 유지하는 반면에, 문화적응도가 높은 경우 떡, 김, 찌릿, 김치, 삼계탕, 각종 찌개류, 돈가스, 순대, 두부조림, 소주, 막걸리 등 한국 식문화에 대한 기호가 형성되고 식습관이 변화하였다[47].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식생활에 적응 후 나타나는 식행동을 살펴보면, 자국음식의 섭취율이 감소하며, 대부분 한국요리 실력에 자신감이 없어 한식위주의 외식생활을 하였다[41].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이 새로운 문화와 식생활에 적응하기까지 장기간 동안 건강에 좋지 못한 식품 및 메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한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된다. 식생활적응과 식행동 간의 관계와 문화적응유형과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조속히 문화적응 및 식생활 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문화적응 정도에 따른 맞춤형 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및 시기

본 연구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다문화가정지원 센터에서 한국어강좌를 수강하는 결혼이주여성 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훈련된 조사자에 의하여 표준화된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3개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3.2 설문조사

설문문항은 연령, 한국에서의 거주기간, 신장, 체중, 월 평균소득, 최종학력, 직업, 흡연 및 음주 여부에 대한 일반사항 조사와 연구대상자들의 문화적응유형, 식생활적응, 식행동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문화적응유형 조사는 D. T. Barry. (2001)가 개발한 설문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48]. 문화적응유형 중 통합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은 5문항, 동화요인은 8문항, 분리요인은 7문항, 주변화요인은 9문항으로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7점 척도법을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는 7점, ‘전혀 아니다’는 1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연구대상자 각각의 문화적응유형은 4개의 문화적응유형 중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인 요인을 대상자의 문화적응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때, 2개 이상의 문화적응유형에서 중복되게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복합적인 문화적응유형을 보이는 4명을 제외하여 최종 63명을 대상으로 4개의 문화적응유형군(통합유형군, 동화유형군, 분리유형군, 주변화유형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문화적응유형 문항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한 결과,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요인의 α 값은 각각 0.74, 0.62, 0.76, 0.83이었는데,

Cronbach's α 값이 0.60 이상이면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식생활 적응도는 E. S. Park. (1997)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이용하였다[49].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정도,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 한국 전통 식품의 이용, 모국 음식을 그리워하는 정도, 모국 식품을 사기위한 노력, 본인이 생각하는 식습관의 변화에 대한 여섯 항목을 Likert 5점 척도로 총 30점 만점으로 측정하였다. '매우 그렇다'는 5점, '전혀 아니다'는 1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평균점수를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 식생활에 대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식생활 적응 문항의 Cronbach's α 값을 산출한 결과, α 값은 0.63이었다.

식행동에 대한 조사는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50]. 문항은 우유 및 유제품, 단백질 식품, 채소 및 과일류 식품 등 총 10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법을 적용하여 '매우 그렇다'는 5점, '전혀 아니다'는 1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식행동 문항의 Cronbach's α 값을 산출한 결과, α 값은 0.67이었다.

3.3 통계분석

자료들은 SAS software Ver. 9.4(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문화적응유형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과 Tukey 사후검정,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으로 비교하였다. 문화적응유형, 식생활적응, 식행동 조사 결과는 평균과 표준오차를 제시하였고, 나이, 한국에서의 거주기간, 최종학력을 보정하여 문화적응유형별 각 지표들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general linear model을 적용한 p for trend를 산출하였고, Tukey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문화적응유형의 세부요인(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소계, 식생활적응 및 식행동 총점수 간에 상호관련성은 나이, 거주기간, 최종학력을 보정하여 상관관계 분석(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다.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문화적응, 식생활적응, 식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SAS Calis procedure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고, 적합도 평가는 GFI, SRMR, RMRSEA 지수를 이용하였다 ($\chi^2 \geq 0.1$, GFI \geq

0.9, AGIF ≥ 0.8 , SRMR ≤ 0.05 , RMSEA ≤ 0.05). 모든 결과는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연구결과

4.1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

본 연구대상자를 문화적응유형으로 분류하면, 통합유형군이 29명, 동화유형군이 12명, 분리유형군이 11명, 주변화유형군이 11명이었다.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나이, 신장, 체중, 월평균소득, 직업, 흡연 및 음주 여부에 대한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거주기간과 최종학력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의 경우 통합유형군이 5.2 ± 3.9 년으로 주변화유형군 보다 약 3.5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최종학력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수는 통합유형군에서는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분리유형군이 10명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동화유형군과 주변화유형군은 각각 6명으로 가장 적었다($p < 0.05$). 본 연구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수는 총 43명으로써 전체 연구대상자 수인 64명의 약 67.2%에 해당하는 수로 본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문화적응점수는 Table 2와 같다. 통합요인에서는 '나는 농담할 때 한국어와 모국어를 둘 다 사용한다($p < 0.01$)', '나는 한국인 친구와 모국인 친구를 모두 가지고 있다($p < 0.05$)', '나는 한국 사람과 있을 때나 모국사람과 있을 때 모두 매우 편안하다($p < 0.05$)'의 3문항에서 통합유형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유형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동화요인에서는 '나는 모국어보다 한국어로 글쓰기를 더 잘한다'($p < 0.05$), '만약 누군가 내게 시를 쓰라고 한다면, 나는 한국어로 쓸 것이다($p < 0.01$)', '나는 모국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과 더 잘 어울려 지낸다($p < 0.05$)'의 3문항에서 동화유형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유형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분리요인에서는 '내가 듣는 대부분의 음악은 모국음악이다($p < 0.001$)',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모국사람이다($p < 0.05$)', '나는 모이는 대부분이

모국사람으로 모인 모임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p<0.001$), '나는 한국 사람보다 모국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p<0.01$)', '연애는 같은 모국사람들끼리 해야 한다($p<0.01$)'의 5문항에서 분리유형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문화적응유형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주변화요인에서는 '나는 때때로 한국 사람과 모국사람 모두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낀다($p<0.01$)', '나는 가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p<0.05$)', '나는 때때로 사람들과 의사소통 하는 것이 어렵다($p<0.01$)', '나는 때때로 친구 사귀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p<0.01$)', '나는 때때로 한국 사람과 모국사람 모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낀다($p<0.05$)', '나는 종종 한국 사람들이나 모국사람들 모두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p<0.05$)',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지 않다($p<0.05$)'의 7문항에서 주변화유형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문화적응유형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4.2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생활 적응 및 식행동

연구대상자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연령, 거주기간, 최종학력을 보정하여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식생활적응의 경우 동화유형군(22.6 ± 1.0^c)의 식생활적응 총점이 가장 높았으며, 통합유형군(21.5 ± 0.7^{bc}), 주변화유형군(18.9 ± 1.0^{ab}) 순으로 하여 분리유형군(17.7 ± 1.1^a)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1$). 식생활적응에 대한 각 세부항목은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대상자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연령, 거주기간, 최종학력을 보정하여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행동 세부 항목 중 '매일 우유 및 유제품을 먹는다'에서만 동화유형군(4.7 ± 0.5^b)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통합유형군(3.7 ± 0.3^{ab}), 주변화유형군(3.1 ± 0.5^a)과 분리유형군(2.9 ± 0.5^a) 순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4.3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및 식생활적응과 식행동 간의 관계

Table 5는 문화적응 및 식생활적응과 식행동 간의 관

계를 분석한 것으로, 상관성분석을 위하여 변인은 문화적응유형의 4개의 세부요인인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요인의 소계 점수를 사용하였고, 식생활적응, 식행동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식행동은 식생활적응과는 약한 양의 상관성($r=0.248$, $p<0.05$)을 보인 반면에, 식행동과 주변화요인과는 약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r=-0.247$, $p<0.05$). 식생활적응과 동화요인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0.375$, $p<0.01$), 분리와 주변화요인은 약한 양의 상관성이 있었다($r=0.267$, $p<0.05$).

4.4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및 식생활적응이 식행동 간의 경로분석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및 식생활적응이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경로분석을 위하여 변인은 문화적응유형의 4개의 세부요인인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요인의 소계 점수를 사용하였고, 식생활적응, 식행동을 이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모델적합도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chi^2=4.340$, $GFI=0.979$, $AGFI=0.891$, $SRMR=0.049$, $RMSEA=0.036$). 동화요인($p<0.001$)은 식생활적응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합, 분리, 주변화요인은 식생활적응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생활적응($p<0.01$)은 식행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5. 논의

본 연구는 동두천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문화적응유형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른 식생활적응 실태 및 식행동을 분석하고, 식생활적응과 식행동간의 상관성 및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그 영향을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우선,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의 경우 통합유형군이 주변화유형군보다 약 3.5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p<0.05$).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지고[51,52], 향수병이 줄어들었다는[53] 기존 연구 결과에 따라, 거주기간이 긴 통합유형군은 향수병에서 회복하여 모국의 문화와 이주국 문화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만,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모

국에 대한 그리움이 모국의 문화와 이주국 문화 사이에서의 혼란스러움으로 나타나 주변화유형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통합유형군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타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였다[4,54]. J. W. Berry, U. Kim, T. Minde, D. Mok. (1987)은 교육을 더 받을수록 지적, 경제적, 사회적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학력이 높을수록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가 아닌 기회나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에 문화적응이 용이하다고 하였는데[56], 이는 본 연구에서 통합유형군에서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하면 통합유형군에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새로운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고학력자의 특성과 모국의 문화와 이주국 문화를 동시에 수용하는 통합유형의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유추된다.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주변화 유형에서 점차 통합유형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그 동안 겪을 수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고려하였을 때, 이들 주변화유형을 위한 사회적인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법 중 하나로서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모국의 문화와 이주국 문화를 조화시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저학력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실시가 요구된다. 게다가 결혼이주여성들의 학력은 본인 스스로의 문화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모 신념, 부모역할 수행 같은 부모역할 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56,5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변화유형군의 학력이 통합유형군보다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 하락이나 심리적 불안감 등 부정적인 양육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한국 사회의 건강한 미래 인력 양성을 위해서라도 주변화유형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생활적응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동화유형군의 식생활적응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통합유형군, 주변화유형군 순으로 하여 분리유형군이 가장 낮았다($p<0.01$). 이러한 결과는 이주국 문화에 대한 수용 여부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주국 문화만 수용하는 동화유형군이 이주

국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분리유형군과 주변화유형군보다 점수가 높아, 결국 본 연구에서는 모국 문화의 유지 여부와는 관련 없이 이주국 문화에 대한 수용과 식생활적응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행동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문화적응유형에 따라 우유 및 유제품을 매일 섭취하는 식행동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동화유형군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통합유형군, 주변화유형군과 분리유형군 순이었다($p<0.05$).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생활 연구가 미비하여 직접적인 고찰은 제한적이지만, 한국으로 이주한 후 식품섭취량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에서[19,58] 한국으로 이주 후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가 증가했다는 결과로 유추하였을 때, 동화유형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영양적으로 우수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으로 우유 및 유제품을 선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분리유형과 주변화유형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적응이 어려워 우유 및 유제품이 풍부한 한국에서도 식생활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제품 섭취를 제외한 다른 식행동의 세부항목이나 식행동 총 점수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넷째,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및 식생활적응과 식행동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상관성 분석에서 식생활적응은 동화요인과 양의 상관관계($p<0.01$) 및 식행동과는 약한 상관성을 보였는데($p<0.05$), 이러한 결과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문화적응유형 중 동화요인만이 식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며($p<0.001$), 식생활적응은 식행동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이주국 문화수용성이 높을수록 이주국의 식생활적응을 통해 올바른 식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아시아계 이민자 대상 한국음식 문화에 대한 연구[46]에서 새로운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한국 식문화 지향성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적응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미국식 식사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59]는 동화요인이 식생활적응을 높인다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 등 적극적인 수용태도가 한국 식생활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보인다.

일방적인 한국문화만을 강조하는 동화정책보다는 모

국과 한국문화를 모두 지향하는 통합유형의 문화적응을 이상적으로 인식하기는 하나[43,44], 본 연구결과 식생활 적응과 식행동개선 측면에서는 통합적 요인이 아닌 동화적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강증진 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동화적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의 식생활적응을 위한 교육은 매우 부족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다문화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이 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 식생활에 대한 배움의 기회가 적다[60]. 또한, 최근 식생활적응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들이 식생활적응 시 주로 모국과는 다른 음식 맛, 요리법, 식재료, 식문화, 식습관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하였고[60], 결혼 후 1년 미만의 결혼이주여성들 중 절반 이상이 한국 식문화에 대한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31],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초기에 한국 식생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결

혼이주여성들의 한국의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은 한국 식생활적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생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에, 문화적응유형 중 이주국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분리유형과 주변화유형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적응 교육 참여 기회를 높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변화요인과 분리요인 간에는 약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는데($r=0.267$, $p<0.05$), 이 두 요인에서의 공통된 특성은 이주국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식행동과 주변화요인 간에 약한 음의 상관성을 ($r=-0.247$, $p<0.05$) 보였으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적응에 취약한 유형에서의 식생활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해 가는 단계에 있어,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동화유형으로의 전환이 이들의 식생활적응 및 올바른 식행동 형성을 통한 건강증진에 직·간접적인 영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Integration group (n=29)	Assimilation group (n=12)	Separation group (n=11)	Marginalization group (n=11)	p
Age (years), average	31.3±7.1 ¹⁾	27.4±7.5	30.5±7.6	28.8±10.9	0.507 ²⁾
Length of residence (year)	5.2±3.9 ^a	3.2±2.2 ^{ab}	4.0±4.0 ^{ab}	1.5±1.3 ^b	0.020
Height (cm)	158.0±4.8	157.9±3.6	159.5±4.9	159.5±3.0	0.608
Body weight (kg)	53.6±8.8	50.3±3.9	53.4±7.0	52.5±5.8	0.611
Monthly incomes (%)					0.749 ⁴⁾
<1,000,000 won	8 (27.6) ³⁾	2 (16.7)	2 (18.2)	1 (9.1)	
1,000,000 ~ 2,000,000 won	13 (44.8)	6 (50.0)	6 (54.6)	6 (54.6)	
2,000,000 ~ 3,000,000 won	6 (20.7)	4 (33.3)	2 (18.2)	4 (36.4)	
≥3,000,000 won	2 (6.9)	0 (0.0)	1 (9.1)	0 (0.0)	
Education (%)					0.022
Primary school	3 (10.3)	1 (8.3)	0 (0.0)	1 (9.1)	
Middle school	5 (17.2)	5 (41.7)	1 (9.1)	4 (36.4)	
High school	11 (37.9)	6 (50.0)	3 (27.3)	5 (45.5)	
College or higher	10 (34.5)	0 (0.0)	7 (63.6)	1 (9.1)	
Occupation (%)					0.257
Housewife	23 (79.3)	11 (91.7)	11 (100.0)	10 (90.9)	
Student	2 (6.9)	0 (0.0)	0 (0.0)	1 (9.1)	
Career women	4 (13.8)	1 (8.3)	0 (0.0)	0 (0.0)	
Smoking (%)					0.542
Yes	1 (3.5)	1 (8.3)	0 (0.0)	0 (0.0)	
No	28 (96.6)	11 (91.7)	11 (100.0)	11 (100.0)	
Drinking (%)					0.562
Yes	3 (10.3)	1 (8.3)	1 (9.1)	0 (0.0)	
No	26 (89.7)	11 (91.7)	10 (90.9)	11 (100.0)	

¹⁾ Means±SD

²⁾ The significant was determined by one-way ANOVA and Tukey's test.

³⁾ n (%)

⁴⁾ All categorical variables were tested by factor groups using chi-square test.

향을 미칠 수 있겠다. 또한,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들 개개인의 문화적응유형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적응프로그램 [61,62]과 더불어 식생활적응 및 식행동 관련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2. Cultural adaptation scores according to the acculturation type

Cultural adaptation	Integratgion group (n=29)	Assimilation group (n=12)	Separation group (n=11)	Marginalization group (n=11)	p
Integration					
I tell jokes both in Korean and in my native language	4.9±0.3 ^{1a}	2.7±0.5 ^b	3.7±0.5 ^{ab}	3.8±0.5 ^{ab}	0.003 ²⁾
I think as well in Korean as I do in my native language	5.1±0.4 ^a	4.3±0.6 ^{ab}	3.2±0.6 ^b	4.1±0.6 ^{ab}	0.052
I have both Korean and my nation's friends	5.5±0.4	4.1±0.6	4.6±0.7	3.5±0.6	0.046
I feel that both my nation's people and Koreans value me	5±0.3	3.7±0.5	4±0.5	3.8±0.5	0.051
I feel very comfortable around both Koreans and my native language	4.8±0.3 ^a	4.7±0.5 ^{ab}	3.6±0.5 ^{ab}	3±0.5 ^b	0.013
Mean	5.1±0.2 ^a	3.9±0.3 ^a	3.8±0.3 ^a	3.6±0.3 ^a	0.0001
Sum	25.3±1 ^b	19.5±1.5 ^b	19±1.6 ^a	18.2±1.5 ^a	0.0001
Assimilation					
I write better in Korean than in my native language	3.8±0.4 ^{ab}	4.7±0.6 ^b	2.4±0.6 ^a	2.6±0.6 ^a	0.015
When I am in my house, I typically speak Korean	5.3±0.4	6.3±0.6	4.8±0.7	4.6±0.6	0.169
If I were asked to write poetry, I would prefer to write it in Korean	3.4±0.4 ^{ab}	5.4±0.6 ^c	2±0.6 ^a	4.3±0.6 ^{bc}	0.002
I get along better with Koreans than my nation's people	2.8±0.4 ^a	4.8±0.5 ^b	2.6±0.6 ^a	3.8±0.6 ^{ab}	0.014
I feel that Koreans understand me better than my nation's people do	3.2±0.3	3.8±0.5	2.8±0.5	3.6±0.5	0.513
I find it easier to communicate my feeling to Koreans than to my nation's people	3±0.4 ^a	4.8±0.6 ^b	3.1±0.6 ^{ab}	3.7±0.6 ^{ab}	0.058
I feel more comfortable socializing with Koreans than I do with my nation's people	3.7±0.3	4.8±0.5	3.2±0.6	3.2±0.5	0.104
Most of my friends at work/school are Koreans	3.3±0.4	3.9±0.6	4±0.6	3.8±0.6	0.716
Mean	3.6±0.2 ^a	4.8±0.2 ^b	3.1±0.3 ^a	3.7±0.2 ^a	0.0001
Sum	28.5±1.3 ^a	38.6±1.9 ^b	24.9±2.1 ^a	29.6±2 ^a	0.0001
Separation					
Most of the music I listen to is from my home country	2.8±0.3 ^a	3.4±0.5 ^{ab}	5.7±0.5 ^c	3.7±0.5 ^{ab}	0.0001
My closest friends are my nation's people	4.3±0.4 ^a	4.9±0.6 ^{ab}	6.6±0.7 ^b	3.9±0.6 ^a	0.012
I prefer going to social gatherings where most of the people are my nation's people	3.5±0.4 ^a	4.3±0.5 ^{ab}	6.3±0.6 ^b	3.2±0.6 ^a	0.0004
I feel that my nation's people treat me as an equal more so than Koreans do	3.9±0.4	4.1±0.6	4.7±0.6	4.2±0.6	0.730
I would prefer to go out on a date with an my nation's people than with a Korean	2.9±0.3 ^a	2.5±0.5 ^a	4.9±0.5 ^b	2.7±0.5 ^a	0.006
I feel more relaxed when I am with a my nation's people than with a Korean	3.5±0.3	3.9±0.5	4.5±0.6	4.6±0.5	0.281
My nation's people should not date non-nations	3.2±0.3 ^a	2.6±0.5 ^{ab}	3.4±0.6 ^b	4.4±0.5 ^b	0.005
Mean	3.3±0.1 ^a	3.7±0.2 ^a	5.2±0.2 ^b	3.7±0.2 ^a	0.0001
Sum	22.8±1 ^a	25.6±1.5 ^a	36.2±1.7 ^b	25.9±1.6 ^a	0.0001
Marginalization					
Generally I find it difficult to socialize with anybody, my nation's people or Korean	2.7±0.3 ^a	3.5±0.5 ^{ab}	3±0.5 ^{ab}	4.4±0.5 ^b	0.054
I sometimes feel that neither Koreans nor my nation's people like me	2±0.3 ^a	3.2±0.5 ^{ab}	2.9±0.5 ^{ab}	4.2±0.5 ^b	0.006
There are times when I think no one understands me	3.6±0.4 ^a	4.3±0.6 ^{ab}	3±0.7 ^a	5.7±0.6 ^b	0.023
I sometimes find it hard to communicate with people	3.5±0.3 ^a	3.7±0.5 ^a	3.7±0.6 ^{ab}	5.7±0.5 ^b	0.009
I sometimes find it hard to make friends	2.9±0.4 ^a	3.3±0.5 ^a	3.5±0.6 ^{ab}	5.4±0.6 ^b	0.004
Sometimes I feel that my nation's people and Koreans do not accept me	2.4±0.3 ^a	2.8±0.5 ^{ab}	2.6±0.6 ^{ab}	4.3±0.5 ^b	0.034
Sometimes I find it hard to trust both Koreans and my nation's people	3.2±0.3	2.6±0.5	3.4±0.6	4.4±0.5	0.087
I find that both my nation's people and Koreans often have difficulty understanding me	3±0.3 ^{ab}	2.9±0.5 ^a	3.4±0.5 ^{ab}	4.9±0.5 ^c	0.012
I find that I do not feel comfortable when I am with other people	2.4±0.3 ^a	3±0.5 ^{ab}	2.7±0.6 ^{ab}	4.4±0.5 ^b	0.027
Mean	2.9±0.2 ^a	3.3±0.3 ^a	3.1±0.3 ^a	4.8±0.3 ^b	0.0001
Sum	25.8±1.7 ^a	29.3±2.5 ^a	28.3±2.7 ^a	43.5±2.6 ^b	0.0001

¹⁾ Means±SE

²⁾ p for trend from general linear model adjusted for age, residence length and education.

Table 3. Food adaptational scores according to the acculturation type

Food adaptation	Integration group (n=29)	Assimilation group (n=12)	Separation group (n=11)	Marginalization group (n=11)	p
I like Korean food	4.0±0.2	4.1±0.3	3.4±0.3	3.6±0.3	0.125
I am interested in Korean food	3.8±0.2	4.1±0.3	3.1±0.4	3.8±0.4	0.238
I use some Korean condiment such as Doenjang (soybean paste), Gochujang (red pepper paste) and Kimchi for cooking	3.9±0.2	4.0±0.3	3.2±0.4	3.5±0.4	0.259
I miss comfort food mother made in my country ³⁾	2.7±0.2	2.6±0.4	2.2±0.4	1.9±0.4	0.340
I try to buy local food from my motherland [†]	3.1±0.2	3.2±0.4	2.7±0.4	3.0±0.4	0.695
My eating habits have changed since I got here in Korea	3.9±0.2	3.9±0.3	2.9±0.4	3.7±0.3	0.090
Total scores (30)	21.5±0.7 ^{bc}	22.6±1 ^c	17.7±1.1 ^a	18.9±1.0 ^{ab}	0.002

¹⁾ Means±SE²⁾ p for trend from general linear model adjusted for age, residence length and education.³⁾ † Reverse coding

Table 4. Dietary behavioral scores according to the acculturation type

Dietary behavior	Integration group (n=29)	Assimilation group (n=12)	Separation group (n=11)	Marginalization group (n=11)	p
I drink more than one bottle of milk or dairy products every day (e.g. yogurt, yoplait)	3.7±0.3 ^{1)ab}	4.7±0.5 ^b	2.9±0.5 ^a	3.1±0.5 ^a	0.024 ²⁾
I eat meat, fish, egg, bean, and bean curd (tofu) at every meal	3.9±0.3	3.9±0.4	4.6±0.5	3.6±0.4	0.468
I eat vegetables other than kimchi at every meal	4.3±0.2	4.5±0.4	4.5±0.4	4.2±0.4	0.847
I eat any kind of fruit (1EA) or fruit juice (1Cup) every day	4.1±0.2	4.4±0.4	4.5±0.4	4.1±0.4	0.693
I eat fatty meats [pork belly (Sam-Kyop-sal), rib (Galbi), broiled eels] more than twice a week ³⁾	3.2±0.3	2.9±0.5	2.3±0.6	3.4±0.5	0.413
I eat fried food or stir-fried dishes more than twice a week [†]	3.0±0.3	3.0±0.5	2.6±0.5	3.7±0.5	0.570
I trend to eat salty food [†]	3.1±0.3	2.9±0.5	2.9±0.5	3.3±0.5	0.892
I eat ice cream, cake, cookies, and carbonated drink between meals more than twice a week [†]	3.3±0.3	2.8±0.5	2.4±0.6	3.5±0.5	0.317
I am not a picky eater, so I tend to ingest a broad variety of foods	3.6±0.3	3.6±0.5	3.4±0.5	2.9±0.5	0.743
I eat three meals on a regular basis	3.7±0.3	3.7±0.5	3.4±0.6	3.3±0.5	0.927
Total scores (50)	35.8±1.0	36.3±1.5	33.6±1.6	35.1±1.6	0.589

¹⁾ Means±SE²⁾ p for trend from general linear model adjusted for age, residence length and education.³⁾ † Reverse coding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dietary behavioral scores and adaptational scores

	Dietary behavioral total scores	Food adaptation total scores	Integration total scores	Assimilation total scores	Separation total scores	Marginalization total scores
Dietary behavior total scores	1.000 ¹⁾	0.248 [*] (0.048) ²⁾	-0.037 (0.770)	0.056 (0.662)	-0.157 (0.216)	-0.247 [*] (0.049)
Food adaptation total scores	-	1.000	0.199 (0.115)	0.375 ^{**} (0.002)	-0.220 (0.081)	-0.095 (0.457)
Integration total scores	-	-	1.000	0.234 (0.063)	-0.091 (0.476)	-0.191 (0.130)
Assimilation total scores	-	-	-	1.000	-0.060 (0.639)	0.115 (0.365)
Separation total scores	-	-	-	-	1.000	0.267 [*] (0.033)
Marginalization total scores	-	-	-	-	-	1.000

¹⁾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adjusted for age, residence length and education.²⁾ *, **p<0.01, ***p<0.001. () p value

Table 6. Path coefficients by the CALIS procedure analysis of dietary behavioral scores and adaptational scores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The standard error	t	p
Food adaptation total scores	Integration total scores	0.089	0.116	0.770	0.441
	Assimilation total scores	0.395	0.106	3.712*** ¹⁾	0.0002
	Seperation total scores	-0.073	0.110	-0.669	0.504
	Marginalization total scores	-0.195	0.113	-1.736	0.083
Dietary behavioral total scores	Food adaptation total scores	0.298	0.112	2.660**	0.008
Model fit		χ ² =4.340, GFI=0.979, AGFI=0.891, SRMR=0.049, RMSEA=0.036			

¹⁾**p<0.01, ***p<0.001.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할 때 유형 별 연구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아, 본 연구결과를 결혼이주여성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대상자의 문화적응유형 분포에서 통합유형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600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J. Y. Lee, G. H. Chung, J. P. Yoo. (2014)의 연구에서도 통합유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동화유형, 분리유형, 주변화유형 순으로[22] 본 연구대상자의 문화적응유형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기에, 본 연구대상자의 수는 결과 도출을 위한 가능한 범위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 식생활적응 및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 교육하기 위한 접근법으로서 문화적응유형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응유형 별 차별화된 교육 실시는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 별 올바른 식생활적응 및 식생활, 식습관 형성 등 관련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데에 기초자료로서 활용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 63명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생활적응 실태 및 식행동을 분석하고, 식생활적응과 식행동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결혼이주여성들을 문화적응유형으로 분류하였을

때, 통합유형군이 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동화유형군이 12명, 분리유형군과 주변화유형군이 각각 11명으로 조사되었다.

- 2)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의 경우 통합유형군이 주변화유형군보다 약 3.5배 길었다.
- 3)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생활적응을 비교한 결과, 동화유형군의 식생활적응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통합유형군, 주변화유형군 순으로 하여 분리유형군이 가장 낮았다.
- 4)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식행동을 비교하였을 때, 우유 및 유제품을 매일 섭취하는 식행동이 동화유형군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통합유형군, 주변화유형군과 분리유형군 순이었다.
- 5)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및 식생활적응과 식행동간의 상관성 분석결과, 식생활적응과 식행동 간, 식생활적응과 동화요인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 6) 구조방정식 모형의 표준화경로계수 값에 의하면 문화적응유형 중 특히 동화요인이 식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식생활적응의 증가가 식행동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문화에 적응해 가는 단계에 있어,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동화유형으로의 전환이 이들의 식생활적응 및 올바른 식행동 형성을 통한 건강증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 개개인의 문화적응유형 특성에 맞는 식생활적응 및 식행동 관련 교육도 더불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rch 20, 2018). *Status of foreign residents in local governments 2011*. http://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sessionId=evQStxQJk1zaa5WDph4rkcBRdFrZoE SV1WR3GI0xnqYnJbw091YYxIvaabEaNjq.mopwas53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14&entId=35541
- [2]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March 20, 2018). *Statistics Korea 2010*.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 [3] A. J. Lee & Y. S. Choi. (2011). Marital Conflicts and Expectations to Family Counselors' Cultural Competence among Immigrated Women Focusing on Typology of Cultural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1), 71-90. DOI : 10.5934/kjhe.2011.20.1.071
- [4] J. H. Kim. (2015). A Study on the Dietary Patterns Affecting Acculturation among Marriage Migrant Women in Urban Area.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7(4), 173-189. DOI : 10.19031/jkheea.2015.12.27.4.173
- [5] Y. Moon, J. Han & I. Park. (2012). Transition in Life of Immigrant Women through Experience of Pregnancy and Deliver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11), 477-484.
- [6] D. H. Chang & B. J. Koo. (2016). A Study on Health Information Websites for Migrant Marriage Women.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4), 77-96. DOI : 10.4275/kslis.2016.50.4.077
- [7] Y. N. Park & S. U. Yoon. (2017).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Behavior and Eating Habits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1), 351-360, 2017. DOI : 10.14400/JDC.2017.15.11.351
- [8] C. S. Park & N. R. Bae. (2011). The Study of How to Integrate Multi-cultural Families with the Local Community.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14(3), 127-149.
- [9] J. W. Berry. (2001).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615-631. DOI : 10.1111/0022-4537.00231
- [10] J. W. Berry. (2005). Acculturation :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697-712. DOI : 10.1016/j.ijintrel.2005.07.013
- [11] J. W. Berry.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68. DOI : 10.1111/j.1464-0597.1997.tb01087
- [12] J. W. Berry & U. Kim. (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13] J. M. Kim, H. S. Lee & M. H. Kim. (2012). Food Adaptation and Nutrient Intake of Female Immigrants into Korea through Marriage.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45(2), 159-169. DOI : 10.4163/kjn.2012.45.2.159
- [14] J. H. Kim & M. H. Lee. (2016). Dietary Behavior of Marriage Migrant Women according to Their Nationality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21(1), 53-64. DOI : 10.5720/kjcn.2016.21.1.53
- [15] S. E. Lee. (2009). *Association between Stress, and Nutritional and Health Status of Female Immigrants to Korea in Multi-cultural Familie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6] J. He, M. J. Klag, Z. Wu, M. C. Qian, J. Y. Chen, P. S. Mo, Q. O. He & P. K. Whelton. (1996). Effect of Migration and related Environmental Changes on Serum Lipid Levels in Southwestern Chinese Men.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44(9), 839-848. DOI : 10.1093/oxfordjournals.aje.a009018
- [17] E. J. Yang, H. K. Chung, W. Y. Kim, L. Bianchi & W. O. Song. (2007). Chronic Diseases and Dietary Changes in relation to Korean Americans' Length of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107(6), 942-950. DOI : 10.1016/j.jada.2007.03.005
- [18] K. Asano, J. H. Yoon & S. H. Ryu. (2014). Chin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Dietary Life after Immigration to Korea : Comparison between Han-Chinese and Korean-Chines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19(4), 317-327. DOI : 10.5720/kjcn.2014.19.4.317
- [19] J. S. Lee. (2012). The Factors for Korean Dietary Life Adaptation of Female Immigra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Bus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41(6), 807-815. DOI : 10.3746/jkfn.2012.41.6.807
- [20] J. S. Lee. (2016). Development of a Korean Food Culture Education Textbook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21(5), 415-425. DOI : 10.5720/kjcn.2016.21.5.415
- [21] Y. S. Kim. (2011).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on Scale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The Women's Studies*, 81(2), 103-146.
- [22] J. Y. Lee, G. H. Chung & J. P. Yoo. (2014). Predictors of Acculturation Types among Marriage Migrant Women.

-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3), 1-15. DOI : 10.7466/jkhma.2014.32.3.1
- [23] Y. S. Kim. (2013). Factors Affecting Acculturation Level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3(4), 5-38. DOI : 10.15709/hswr.2013.33.4.5
- [24] L. J. Cabassa. (2003). Measuring Acculturation : Where We are and Where We Need to go.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5(2), 127-146. DOI : 10.1177/0739986303025002001
- [25] R. M. Suinn, C. Ahuna & G. Khoo. (1992). The Suinn-Lew Asian Self-identity aAcculturation Scale : Concurrent and Factorial Valid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2(4), 1041-1046. DOI : 10.1177/0013164492052004028
- [26] E. M. Lim, S. J. Jeong & S. J. Lee. (2010).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s Cultural Adaptation Types and Acculturation Stres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3), 957-973. DOI : 10.15703/kjc.11.3.201009.957
- [27] H. J. Choi. (2009).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Pertaining to the Acculturation Strategies among Immigrated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1(1), 163-194. DOI : 10.20970/kasw.2009.61.1.007
- [28] H. J. Lee & H. A. Kang. (2011). A Study on the Cultural Identity, Acculturation Pattern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i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2(4), 147-166. DOI : 10.5723/kjcs.2011.32.4.147
- [29] J. Satia-Abouta. (2003). Dietary Acculturation : Definition, Process, Assessment and Im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4(1), 71-86.
- [30] M. Tseng, D. J. Wright & C. Y. Fang. (2015). Acculturation and Dietary Change among Chinese Immigrant Wome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17(2), 400-407. DOI : 10.1007/s10903-014-0118-4
- [31] H. M. Kim & K. S. Han. (2015). The Diffusion Stage of Korean Food by the Food Acculturation Type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9(1), 13-32.
- [32] N. Lv & K. L. Cason. (2004). Dietary Pattern Change and Acculturation of Chinese Americans in Pennsylvania.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104(5), 771-778. DOI : 10.1016/j.jada.2004.02.032
- [33] I. A. Lesser, GD. asevic & S. A. Lear. (2014). The Association between Acculturation and Dietary Patterns of South Asian Immigrants. *Public Library of Science One*, 9(2), e88495. DOI : 10.1371/journal.pone.0088495
- [34] J. So & S. N. Han. (2012). Diet-related Behaviors, Perception and Food Preferences of Multicultural Families with Vietnamese Wives.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17(5), 589-602. DOI : 10.5720/kjcn.2012.17.5.589
- [35] K. T. Jeon, H. S. Chung, Y. S. Kim, Y. R. Kim, J. S. Joo, H. Y. Kim, C. K. Son, J. B. Lee, K. S. Chung, J. M. Hwang, M. J. Kang, B. Y. Seon, Y. J. Choi, Y. .S. Ju, G. P. Park & J. Y. Dong. (2013). *A Study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2*. Seoul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36] K. A. Lee. (2002). The Concern for Health, Nutrition Knowledge, and Nutritional Attitud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Mothers in Bus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17(4), 411-423.
- [37] M. L. Jung, S. N. Rho & C. S. Kim. (2007). The Survey of Anthropometric Data and Dietary Behavior of Chines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Incheon, Korea.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17(3), 289-303.
- [38] C. Schwartz, P. A. Scholtens, A. Lalanne, H. Weenen & S. Nickalus. (2011). Development of Healthy Eating Habits Early in Life. Review of Recent Evidence and Selected Guidelines. *Appetite*, 57(3), 796-807. DOI : 10.1016/j.appet.2011.05.316
- [39] J. E. Kim, J. M. Kim & S. H. Seo. (2011). Nutrition Education for Female Immigra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a Multicultural Approach : In-depth Interviews with Female Immigrants and Nutrition Education Professionals.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44(4), 312-325. DOI : 10.4163/kjn.2011.44.4.312
- [40] S. H. Kim, W. Y. Kim, J. E. Lyu, H. W. Chung & J. Y. Hwang. (2009). Dietary Intakes and Eating Behaviors of Vietnamese Female Immigrants to Korea through Marriage and Korean Spouses and Correlations of Their Diets.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14(1), 22-30.
- [41] Y. H. Han, W. S. Shin & J. N. Kim. (2011).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Identity of Migrants : Influential Factor on Korean Dietary Life and Eating Behaviour of Female Marriage Migrants. *Comparative Korean Studies*, 19(1), 115-160.
- [42] Y. J. Kim. (2009). Cultural Conflicts and Adaptation Dstrategies of Korean 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about Food.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 19(1), 121-160.
- [43] I. J. Yoon. (2003). The Korean Diaspora : Migration, Adaptation, and Identity of Overseas Korean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7(4), 101-142.
- [44] S. R. Park. (2008). A Study on the Media Use, Cultural Identity and Acculturation of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52(6), 237-257.
- [45] J. Y. Park & C. S. Lee. (2012).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Women Immigra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11), 665-672.
- [46] Y. K. Bae. (2011). *A Study on the Korean Dietary Acculturation for the Asian Immigrants in Korea -focus on the Country of Origin and Food Neophobia-*.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47] F. F. Song & M. J. Kim. (2015). Acculturation, Food Intake and Dietary Behaviors of Chinese College Students in Busan by Residential Period.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25(4), 594-606. DOI : 10.17495/easdl.2015.8.25.4.594
- [48] D. T. Barry. (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3(4), 193-197. DOI : 10.1023/A:1012227611547
- [49] E. S. Park. (1997). Factors of food adaptation and changes of food habit on Koreans residing in Americ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12(5), 519-529.
- [50] W. Y. Kim, M. S. Cho & H. S. Lee.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ini dietary assessment index for Koreans.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36(1), 83-92.
- [51] H. Park. (2010). Acculturative Stress and Mental Health of Korean Women Living in UK.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0(8), 308-316. DOI : 10.5392/jkca.2010.10.8.308
- [52] G. H. No. (2012).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cculturation among Korean Elderly People in New York City.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0, 159-189. DOI : 10.15300/jcw.2012.03.40.159
- [53] J. H. Ahn & J. H. Cho. (2011). Psychosocial and Cultural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in the Chungcheongnam-do area of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2, 137-176. DOI : 10.16975/kjfs.2011.32.005
- [54] M. J. Lee & H. M. Kang. (2011). A Study on the Enculturation State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Islands - Focused on Gang-wha Island, Dae-bu Island, Young-jong Island and Yeoung-hueng Island. *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 17(2), 77-112. DOI : 10.24159/joec.2011.17.2.77
- [55] J. W. Berry, U. Kim, T. Minde & D. Mok.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491-511. DOI : 10.2307/2546607
- [56] H. S. Choe. (2010).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Parenting Self-efficacy : Focusing on Chinese, Filipinas, and Vietnames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7), 1-13. DOI : 10.6115/khea.2010.48.7.001
- [57] B. Y. Jeon. (2012). Relationship between the Acculturation Attitude and Parenting Role Competence of Female Immigrated by Marriage. *Journal of Parent Education*, 4(2), 15-32.
- [58] E. J. Yang & J. M. Khil. (2016). Food Intake and Nutritional Statu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Residing in Gwangju, Korea.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49(5), 358-366. DOI : 10.4163/jnh.2016.49.5.358
- [59] S. K. Lee, J. Sobal & E. A. Frongillo. (1999). Acculturation and Dietary Practices among Korean Americans.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99(9), 1084-1089. DOI : 10.1016/s0002-8223(99)00258-8
- [60] J. S. Lee. (2017). Analysis of Korean Dietary Life Adaptation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22(2), 103-114. DOI : 10.5720/kjcn.2017.22.2.103
- [61] J. Lim, Y. Han & H. Kim. (2017). The Relationship of Acculturative Stress, Self-esteem and Oral Management Ability of Vietnam Marriage 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6), 109-119. DOI : 10.15207/JKCS.2017.8.6.109
- [62] L. Chon & H. Cho. (2017). A Convergence Study on Social Support and Life's Satisfaction of the Marriage Im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6), 359-368. DOI : 10.15207/JKCS.2017.8.6.359

김 혜 원(Kim, Hye Won) [정회원]



- 2007년 8월 : 고려대학교 의학과 (이학석사)
- 201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이학박사)
- 2017년 4월 ~ 현재 : 안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영양교육, 영양생리, 생애주기, 다문화
- E-Mail : kimhw@anyang.ac.kr

김 민 화(Kim, Min Hwa) [정회원]



- 1992년 2월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학전공(문학석사)
- 2001년 2월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아동발달심리 전공(철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 아동발달 및 교육, 문화예술교육
- E-Mail : educhild@shinhan.ac.kr

김 지 명(Kim, Ji Myung) [정회원]



- 1999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이학석사)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식품조리과학부 식품영양전공 부

교수

- 관심분야 : 영양교육, 영양생리, 지역사회영양, 다문화
- E-Mail : kjm@shinhan.ac.kr